‘조선’ ‘한겨레’ 손석희 앵커도 놀라고 감동했다

일반 언론에서는 총무원장 스님과 지난 8년 간을 어떻게 그렸을까? 조선 중앙 한겨레 동아 한국일보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및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종단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폈다.

일간지들은 주로 종단의 정책을 다루었다. 화쟁위원회,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노동위원회 등 사회를 향한 자비와 종단의 자기 혁신, 사찰재정공개, 분담금 개편, 승려노후복지 등 종단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미국인 출신 현각스님의 종단 비판,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응 등도 언론은 놓치지 않았다.

종단 행보가 과거와 달리 사회 문제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온 까닭에 종합일간지 1면 머리를 장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조선 중앙 한겨레 등 보수 진보 매체 모두 종단의 사회 행보를 1면에 비중 있게 다뤘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신문이 조선일보 2015년 12월10일 기사였다. 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2015년 12월 조계사로 피신한 뒤 조계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뜨거운 곳이 된다. 그는 거의 한 달 간을 조계사에 은신했다. 당시 시국은 2014년 세월호 침몰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공세를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바람에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다. 그 와중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한 발이라도 밀리는 쪽이 지는, 마주 달리는 기관차가 서로를 겨냥하던 극단적인 대치가 이어지던 2015년 연말 반정부의 최전선에 서있던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숨어든 것이다.

한겨레
hani.co.kr
벼랑끝 몰린 철도노조, 조계종이 품에 안다
수석부위원장 등 종교계 중재 기대하며 조계사로
승려 “짐승도 내쫓지 않는게 불교정신…당연히 보호”
도법스님·인명진 목사, 오늘 여당에 ‘대화기구’ 제안

朝鮮日報
1920년 3월 5일 창간 chosun.com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政敎충돌 직전 ‘스님의 한 수’
자승 원장 “한상균 거취 오늘 정오까지 해결”
조계사 진입했던 경찰 영장집행 일단 연기
민노총 긴급 대책회의 ‘韓 순교자 만들기’ 차질
野 마비 상태
이종걸도 “최고위 불참하겠다”
수도권 의원 ‘文·安 중재’ 시도

종단의 쇄신과 사회를 향한 관심은 일반언론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조계사로 찾아든 철도노조 간부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보듬은 종단의 모습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종교간 화합에 대해 브리핑한 jtbc 보도 모습.

노동계-정부 갈등 중재 모습 상세 보도

정부는 당장이라도 조계사로 들어가 끌어낼 기세였다.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와 언론도 이를 부추겼다. 그러나 종단과 화쟁위원회는 경찰의 사찰 침입을 절대 허락 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도법스님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다. 단순히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중재까지 요청한 것이다. 이는 마주 달리는 열차 가운데 들어가 세워달라는 요구였다. 우리 사회 어느 곳도 정부와 노동단체를 중재할 능력이 없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가장 무력했다.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고, 이념이 덧 씌워진,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양측이 대립하는 극단의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구원군도 없는 조계종이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간 것이다. 어느 한 쪽도 섭섭해서는 안되고, 정부의 공권력이 사찰에 들어와서도 안되지만 자존심에 상처 입어도 안되며, 보호를 요청하며 찾아온 ‘비둘기’를 쫓아내지 않는 것은 물론 하소연도 들어주어야 하는 4중, 5중의 과제를 종단이 떠안았다. 그 결과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말해주었다. ‘정교충돌 직전 스님의 한 수’. 한 컷의 제목이 모두 대변했다. 그 어려운 중재를 종단은 해냈다. 한상균 위원장도 감사했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정부와 노조의 중재를 가능하게 한 힘은 화쟁위원회였다. 화쟁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사대강을 놓고 여야 사무총장과 찬반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합의점을 모색할 정도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점들이 사회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화쟁위의 그같은 활동이 있었기에 민노총도 중재를 일임한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화쟁위의 활동을 눈여겨 보았다. 화쟁위의 활동 중 특히 종교평화선언이 두드러졌다. 중앙일보는 2011년 8월24일 신문에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화쟁위 활약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전에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다. 기사는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기자는 종교평화선언이 “국내 종단이 자체 종교 평화 선언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역시 종단의 사회 문제 해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2013년 12월25일 한겨레신문은 ‘벼랑 끝 몰린 철도노조, 조계종이 품에 안다’라는 제목을 머리기사 제목으로 배치했다. 기사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자리한다는 25일 성탄절에 수배를 받고 있는 박태만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전날 밤 경찰 눈을 피해 조계사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계사는 수배자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 정국 때 광우병 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등도 이곳에 몸을 숨겼다. 그 전에도 조계사는 명동성당과 함께 억압받는 이들이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안방’과 같은 곳이었다”고 소개했다.

한겨레는 경찰 검문이 삼엄한 조계사 주변 풍경과 화쟁위원회 등 갑자기 닥친 ‘불청객’을 맞는 종단 움직임, 경내 진입도 불사한다는 경찰과 정부 여당의 목소리 등 평화롭던 연말에 불어닥친 조계사와 종단 분위기를 긴박하게 전했다.

1면을 가득 채운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피신해 온 노동자들이 묵고 있는 건물은 극락전이다. 극락전이 모시는 본존불(법회의 중심이 되는 부처)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은 극락에 머물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처다. 세상에 비치는 광명에 끝이 없다고 하여 무량광불이라고 불린다. 차별없는 자비를 뜻한다. 조계종 쪽은 노동자들을 이 곳에 묵게했다.”

보수 진보 모두 조계종 변화 긍정 평가

종단은 다른 종교와 화해 협력도 적극 나섰다. 총무원장 스님은 연배가 가장 적었지만 대표적인 종교협의회 두 곳의 회장을 맡았다. 종교를 떠나 성직자들을 깍듯이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잘 모셨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 사찰 스님들의 종교화합은 언론에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2014년 12월17일 JTBC는 손석희 사장의 앵커브리핑에서 조계사 성탄트리와 포용에 대해 논평했다. 제목은 ‘침묵의 경배’였다. 손석희 사장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서울 조계사 앞에 예쁜 풍경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일주문 앞에 고운 빛깔의 성탄 트리가 설치된 겁니다. 트리 옆엔 양 볼이 발그레한 동자승도 서 있군요~ 바라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라며 “침묵의 경배.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계사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자승 총무원장은 이런 축하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갑시다.” 손 사장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다른 종교를 끌어안는 조계종을 높이 평가했다.

세월호 희생자 위로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종단의 모습도 언론은 자주, 그리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사회노동위원회가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해 72시간 철야기도에 나선다. 사회노동위는 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세월호 선수 들기 예정일인 오는 11일 오후 7시까지, 72시간 동안 3만 배 절을 봉행한다. 사회노동위 위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3박 4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노동위 관계자는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영혼의 애통함을 달래주려고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간절함을 담아 세월호 인양 기원 절 기도를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외 108배, 3보1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불교계 소식이 알려졌다.

종단의 자성도 언론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2015년 1월 29일자 조선일보는 ‘자승스님 “도대체 우린 중(僧) 정신이 없다”’는 제목으로 1면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편집을 했다. 일간지들은 매주 한차례 종교 면을 배치한다. 사건 사고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대개 문화면에 머리 기사나 상자 기사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 날 조선일보가 1면에 배치한 기사는 종단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즉 순수한 종단 내 토론회였다.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한국 최대 영향력을 자랑하는 매체 답게 그 영향력은 컸다. 불교의 자체 개혁 노력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종교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갤럽조사 후 종교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연합뉴스는 2016년 이에 대한 종단 주요 지도자들의 진단과 대책을 실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지금처럼은 안 된다. 기복적인 것을 벗어나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바꾸는 수행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내 존립이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 역시 “불교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포교한다면 유교처럼 되지 않겠는가. 출가자도 줄고, 교단이 없으면 불교는 역사적 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언론은 불교계 위기가 내부의 부정적 요소,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관습 등을 위기의 근본 요소로 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독신 가구 증가라는 시대의 변화가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세계일보는 20년간 유지돼 온 사찰 분담금 제도 개선을 다루었다. 이 신문은 “사찰 분담금은 25개 교구본사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돈으로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기준이 마련돼 1996년부터 시행됐다”며 “각 사찰은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받지만 총무원이 개별 사찰의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임의로 정한 액수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왔다. 게다가 본사가 말사에 징수하는 분담금의 비율이 교구별로 다르고, 일부 사찰은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사찰 재정공개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2015년 연합뉴스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의 재정을 공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직영사찰, 특별 분담금 사찰 등 연간 예산 30억원 이상(4등급)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각 사찰의 예·결산을 종단에 보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보(寺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 뒤 일반 신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3298개 조계종 사찰 가운데 예산 30억원 이상은 50여 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조계종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종법을 개정해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도법스님과 화쟁위원회도 화제

종단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독일의 한 경매에 출품된 조선시대 불화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를 낙찰 받아 환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불화가 “독일의 한 경매에 출품된 것을 확인해 조계종에 알렸고, 종단은 경매를 통해 그림을 낙찰 받았다”고 소개하며 “통상 도난 당했다는 기록이 확실한 문화재의 경우 경매 중지 요청 등을 통해 반환해오지만, 석천암의 경우 1882년 이후의 기록만 남은 상태라 직접 그림을 사서 들여왔다”는 조계종 관계자의 설명을 곁들였다.

승려노후복지 정책도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언론은 조계종 스님의 인구 구성이 이미 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으며 2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노후복지가 승가의 화두로 떠오른 데 따라 노후복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언론은 “종단의 전법(傳法) 종책을 이끄는 조계종 포교원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새 포교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를 “그만큼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등 불교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사회 비판 기능을 하는 언론 특성은 종단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 하버드대 출신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이 조계종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한 내용을 실으며 “조계종은 현각스님이 던진 ‘기복=$, 슬픈 일’이란 표현을 죽비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계종 역사에 처음 등장한 외국인 승려의 비판을 낡은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지 못하면 조계종은 세계화는 고사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B1면에 이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의 장을 열었다. 미흡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대중공의제를 과감히 도입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재가가 함께 모여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의하니 종단 안정은 더 굳건해지고 해결방안은 저절로 열렸다.

총무원장 스님은 매월 현장을 찾았다. 복지관 소방서 한부모가족센터 등 8년 동안 매월 자비나눔 행보를 이어갔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눈물의 현장을 찾고 천주교, 기독교 시설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다. 사람들을 찾아가자 사람들이 불교를 찾기 시작했다. 세상은 이를 현대판 소도라 칭했다. 정부에 청할 일이 있으면 총무원장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따뜻하게 맞았다. 일회성 보여주기가 아니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겼다. 한 번 뱉은 말은 기필코 지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

종교 인종 성별 직위를 가리지 않고 따뜻이 끌어안았다. 다른 종교인들이 가장 젊은 총무원장 스님을 두 번 연달아 종교협의체 회장으로 밀었다. 스님은 다른 종교인들을 모셨다. 저절로 종교가 함께 손잡고 웃었다.

바깥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웃음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우리 내부를 향한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을 탓하고 밖의 허물을 구실 삼기보다는 나 자신을 질책하고 안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중요한 것은 예산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인과(因果)의 법칙”이라며 고려 말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定慧) 결사’, 1947년 성철·청담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처럼 한국 불교 내부의 자성운동을 선언했다.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세워 나가는 ‘수행 결사’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 결사’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 결사’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 결사’ △종교 간 평화와 남북 및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 결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지속적 종단 혁신’을 제34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할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8년 내내 이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다. 환호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끄럽기도 했다. 역사를 쓰는데 흠이 없고 잡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종단이 여태껏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장식한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종단은 이제 제 궤도에 올랐다. 어느 누구도 되돌리지 못할 굳건한 종단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밝혔다. 불교신문이 지난 8년의 기록을 남기는 이유다.